

위탁 2012-5

국가인력수급정책과 연계한 국가우수 장학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Strategies Connected with Manpower Policy for
National Merit-base Scholarship System

연구책임자 : 김 미 란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원 : 이 정 미 (한국교육개발원)
 임 진 택 (경 희 대 학 교)
연구조원 : 강 선 희 (한국교육개발원)



제 출 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인력수급정책과 연계한 국가우수장학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1. 15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교육개발원
- 연 구 기 간 : 2012.08.16 ~ 2012.11.15
- 주관연구책임자 : 김 미 란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장학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국가인력수급정책과 연계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우수장학선발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고등교육 분야의 국가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우수 인재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이에 필요한 국가장학금제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업무 흐름(Work Flow)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학생 선발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방안과 더불어 현행 장학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최근 들어서는 장학제도의 성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장학제도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발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첫째, 국가우수장학제도의 운영과 국가인력수급정책과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둘째, 이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선발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지, 셋째,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수요 분석을 통해, 첫째, 미래에는 학부 수준보다는 석박사급의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미래 유망산업의 중장기 인력수급 부족에 대비하여 관련 전공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과학기술 핵심인재의 수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의 바탕이 되는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공 등과 같은 특정 전공에서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특정 전공의 석박사급 인력은 학부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수 학부생을 조기 발굴하여 관련 대학원으로 진학을 유도한 제도적 장치로 국가우수장학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립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대학등록금이 비싸고 대학 차원에서 장학제도의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미국과 대학등록금이 비싸지만 장학제도

와 같은 학생지원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은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첫째,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학 중심으로 우수장학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 수준에서의 특별 우수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저소득층의 Need-base 장학금을 성적과 같은 다양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Merit-base 장학금 형태로 병행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대학 수준에서 우수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있었다. 둘째, 대학 특성별·유형별 장학제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원양성을 위해,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의 특성이나 대학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셋째, 우수 학생의 선발 기준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표준화 검사 점수나 고등학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리더십 및 지역 봉사 활동 등, 기계적인 선발이 아닌 정성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실제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넷째, 미국과 일본 모두 선발 시기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었다. 다섯째, 해외에서는 금전적 보상 이외에도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여섯째, 통합 장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우수장학제도의 현황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우수장학사업 예산은 2012년도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신규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지원 목적이 장학금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이공계의 경우에는 세계 수준의 핵심 과학인재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인문계의 경우에는 우수학생 지원을 통한 국가 핵심 리더 양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와 같은 취지의 국가우수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기준이 매우 엄격하였다. 넷째, 장학생 선발이 대부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공계 국가장학생 사업에서는 재학 중 우수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이는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입학 당시 이공계 혹은 인문계 국가장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한 재학생을 학교추천으로 보충하는데 지

나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우수장학생이 입학 시에 결정되고 있었다. 다섯째, 특정 대학에 배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또한 국가우수장학사업의 지원이 대학원 수준의 석·박사 과정 학생 보다는 학부 장학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학생 선발 방안 개선을 위해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우수장학생 선발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무관하게 성적 중심의 획일적인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쉬운 수능'이 계속되면서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보다는 학생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대학별고사나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한 종합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전형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우수장학생 선발은 수능우수유형은 수시와 정시 모집 모두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우수장학은 수시모집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장학담당자를 중심으로 한국장학재단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국가우수장학제도 운영의 문제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국가우수장학제도의 운영 목적은 무엇보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핵심인재의 양성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대학 차원에서는 이를 지역 우수 인재의 유치를 통한 대학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가우수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우수장학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2012년의 예산 감소로 인해 실제 대학 차원에서도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대학별 배분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방의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또한 우수학생의 선발이 수능이라는 획일적인 성적 기준만으로 이루어져 대학 서열뿐 아니라 사회 계층구조를 재생산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운영에서는 국가우수장학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 계획의 미비로 제도 변경이 잦을 뿐 아니라, 실제 대학의 커리큘럼 운영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권위적인 운영 방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

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미래 핵심인재의 양성과 교육기회균등이라는 지원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여 석박사과정의 대학원과정 학생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미래의 신성장동력에 필요한 전공 분야에 집중 배분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둘째, 대학 배분 기준으로는 대학별 성적 분표를 고려하여 대학에 따라 선발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나아가 선발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다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창의력이나 학습의욕, 잠재력 등과 같은 정성 평가를 도입하여 학교나 지역, 특정 단체의 추천으로 면접과 포트폴리오, 졸업 후 진로 계획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넷째, 또한 국가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우수장학생을 현재의 잔여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재학 중 우수장학생 선발제도를 신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장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다섯째, 국가우수장학제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학 중에서도 사회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다수 수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국가우수장학제도의 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장학재단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학과 연계할 뿐 아니라 편리한 지원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이를 수요자는 물론, 기업과 사회에 널리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인력수급전망, 해외사례, 현황조사, 면담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운영기준의 명확화로 국가인력수급정책과 연계한 우수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취지와 목적을 장학금 지원 유형별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우수장학사업 선발 유형 및 규모를 사전에 공지하고 대학별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학 스스로가 노력하여

‘우수인재’를 선발함으로써 대학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 배분기준(안)과 대학 중심의 선발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둘째, 선발 기준 개선안으로 먼저 선발기준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수시 우수유형을 학생부우수유형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학생부우수유형을 일반대상자와 내신관리가 어렵고 설립목적이 특수한 과학고와 영재고 출신자는 이 공계장학 선발에 있어 별도의 인원을 할당하여 대학 자체의 전형성적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학생 선발 시기를 현행의 신입생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3-4학년 전공에 맞게 선발할 수 있도록 재원을 다양화하여 재학 중 우수장학생 선발 확충을 제안하였다. 전체 국가우수장학금 사업의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국가장학금사업 총예산의 10~20% 수준이 되도록 확충하여 신성장동력 분야 중 미래 유망기술 분야(바이오의약, ICT, 신소재나노, 첨단도시, 환경기술, 고부가식품, 로봇기술, 친환경에너지, 수송탐사)의 학부 3학년 진급 학생 중 성적 및 해당 대학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성적 기준 이외에 학생이 제출한 추천서나 면접뿐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업계획서나 동일 계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생부 교과 성적,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개인 활동자료 및 실적물 등, 정성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자료를 이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장학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라 할 수 있는 장학사정관제도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셋째, 국가우수장학사업 운영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관련 부처는 물론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국가우수 장학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의 개발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장학재단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학의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그러

한 사례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장래의 진로와 취업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직업관, 나아가 바람직한 인생관을 고취시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2-Layer 멘토링을 통한 인재육성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KorMent 리더십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KorMent 아카데미(가)와 같은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국가우수장학사업의 취지를 살려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은 물론, 국가우수장학사업 네트워킹이나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모두를 위해 장학재단의 시스템을 통합 개선·운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